



맞춤 인그레이빙 서비스로 시간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최고급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적이고 친밀한 오브제가 되어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과 그 속에 담긴 추억을 회상하는 매개체가 되어줍니다.

90 여 년 전, 예거 르쿨트르가 리베르소를 처음 출시했을 당시 폴로 선수들을 위해 경기 중 깨지기 쉬운 시계 글래스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적인 해결책으로 설계된 다이얼 뒷면은, 머지않아 에나멜이나 인그레이빙을 사용하여 특별한 메시지와 예술 이미지를 장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인그레이빙이나 뜻 깊은 의미를 담은 표식을 새기고, 다른 이들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 기념일이나 사랑의 메시지를 새겨 넣기도 합니다.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리베르소에 시계에 새겨진 인그레이빙은 본인만의 비밀로 간직하거나 뒤집어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홍보대사 세 명이 리베르소 맞춤 인그레이빙 서비스를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니콜라스 홀트

어린 시절부터 시계를 사랑해온 영국 출신의 배우 **니콜라스 홀트**(영화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엑스맨*, *싱글맨* 출연)는 4년간 예거 르쿨트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랑 메종의 영화 관련 활동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홀트가 선택한 스틸 소재의 리베르소 클래식 라지 스몰 세컨드 모델은 편안한 클래식 스타일을 선호하는 그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아들의 이니셜을 새겨 넣어 지극히 개인적인 디테일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늘 옆에 있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계에 HKH 이니셜을 새겨 넣었습니다. 제 가족들은 시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오랜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시계를 아들에게 줄 그 순간이 기다려집니다.”라고 말하며, 시계를 사랑한 아버지 덕분에 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인그레이빙 문구가 새겨진 그의 리베르소 시계는 니콜라스 홀트의 가족에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선사할 가보가 되었습니다.

아만다 사이프리트

미국 출신의 배우 **아만다 사이프리트** (영화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출연)은 2019년 초에 처음으로 SIHH 에 참석한 자리에서 예거 르쿨트르 그랑 메종의 홍보대사로 합류하였으며, 많은 곳에서 반려견 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10여년 전, 동물보호소에서 구조된 오스트레일리언 셰퍼드 종인 핀은 그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거 르쿨트르의 인그레이빙 장인에게 리베르소 클래식 미디엄 씬의 뒷면 다이얼에 자신이 좋아하는 핀의 사진을 옮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만다 사이프리트는 핀에 대해 “언제나 저와 함께 했어요.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제 삶을 이끄는 빛이 되어 주었죠. 핀은 제게 행운의 부적과도 같아요. 매일 그의 작은 얼굴이 제 피부에 닿으면 특별한 정서적 교감을 느낄 수 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니니

*진림의 13 소녀(The Flowers of War)*와 *신석연(Love and Destiny)*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니니**는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젊은 배우입니다. 2018년, 예거 르쿨트르의 홍보대사가 된 이후 영화 예술을 후원하고 보존하는 그랑 메종의 행보에 참여하여 스크린 밖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니니는 리베르소에 고향을 상징하는 매화꽃을 새겨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매화꽃은 그녀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강인한 내면을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어렸을 때, 우아하고 강인한 매화꽃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많은 중국 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제 고향인 난징에는 ‘중국 최고의 매화꽃이 피는 산’ 과 현무호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눈 내리는 겨울에도 매화꽃이 피어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역경을 견뎌내는 인내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매화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니니가 선택한 리베르소 클래식 미디엄 씬의 청량한 스틸 케이스는 섬세한 매화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줍니다.



스틸이나 골드 소재의 리베르소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로 구입한 시계는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계의 케이스 반대편에 인그레이빙을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에서 선보이는 온라인 신청 툴(<https://engraving.jaeger-lecoultre.com>)에 접속하여 거주지에 제약받지 않고 직접 인그레이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글꼴의 이니셜이나 날짜, 간단한 텍스트 메시지 또는 별자리와 같은 표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강조해줄 컬러 래커 옵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진이나 스케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같은 맞춤 디자인도 온라인 상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디자이너와 인그레이빙 장인들이 숙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에 방문하시어 전문가와 함께 맞춤 인그레이빙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니니와 아만다 사이프리트가 선택한 맞춤 인그레이빙 서비스와 같이 전문가는 고객과의 상담을 거쳐 사적이며 독창적인 디자인을 완성한 후 최종본을 시계에 새겨 드립니다.

간단한 작업부터 정교한 이미지까지 리베르소 시계에 새겨진 모든 인그레이빙은 최고급 시계를 독창적인 작품으로 격상시키고, 사적이며 뜻 깊은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은 영원히 간직될 만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인그레이빙 서비스 소개: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인그레이빙 서비스는 스틸 또는 골드 소재의 리베르소를 구입하셨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고객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매 시점이나 그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다양한 표준 디자인을 새겨 넣거나 맞춤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 툴(<https://engraving.jaeger-lecoultre.com>)이나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1833 년부터 이어온 파인 워치메이킹의 명가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 드 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매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워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 년 이래 1,2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수많은 워치메이커들 중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www.jaeger-lecoultre.com